

경기 과천시 과천동

# '빅마마' 이혜정 핑크하우스 동네 명물

요리연구가 이혜정은 이종대 유한킴벌리 초대회장의 딸이다. 대구효성여자가 정학과를 졸업하고 20대 초반의 나이에 4년 연상의 육군 군의관 대위였던 의학박사 고민환 씨와 결혼했다.

요리인의 길로 가기로 했던 것은 남편의 한마디가 결정적이었다. 그는 "전업주부로 15년을 살다가 남편이 '너 할 줄 아는 게 있냐'고 화를 냈다"고 회고하며 "정말 무너져 버렸다. 평생 그렇게 운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말이 내게 약이 됐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그 자리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서른 가지 썼는데 그중 반 이상이 요리 얘기더라"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음식의 길로 가야겠다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시아버지와 아들의 칭찬은 물론 동네 사람들도 그의 요리 솜씨를 칭찬해 요리교실을 열었다. 요리를 배우러 온 이들에게 조리 과정을 쉽게 알려 주고자 했고 유행



이혜정 요리연구가의 핑크하우스

어 "얼-마나 맛있게요"도 이때 탄생했다. '요리 잘하는 동네 아줌마'를 찾던 방송사 관계자 눈에 띄어 1993년 대구MBC의 한 TV프로그램에서 요리 강사로 방송에 데뷔한 것이 인생을 바꿨다.

그렇게 인지도를 얻은 뒤 본격적으로 요리연구가의 길을 걸었다. 요리 연구를 위해 42살 때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났다. 이

탈리아 토리노 ICIF 요리학교 재학 중 담당 교수는 그에게 '빅마마'라는 애칭을 붙여 줬다.

이혜정은 "똥똥해서 그러는 게 싫었는데 이탈리아에서는 마피아 보스의 와이프를 빅마마라고 한다더라"고 떠올렸다.

귀국해 2004년 요리 전문 채널 올리브에서 방영한 '빅마마의 오픈 키친' 진행자로 나섰다. 특유의 입담과 푸근한 인상으로 방송계에서 이름 석 자를 대중에게 각인시켰다.

이후 MBN '속풀이쇼 동치미', TV조선 '궁금한 스타쇼 호박씨', MBC '기분 좋은 날' 등 중편과 지상파를 넘나들며 요리연구가 겸 방송인으로 활약했다.

방송뿐만 아니라 사업 분야에서도 승승장구했다. 2010년 '빅마마 비프스테이크'로 호소핀 사업에 진출해 2011년 H호소핀 식품판매 부문에서 1위를 달성했다. 이혜정은 방송에서 당시 230억 원의 매출을 올

렸다고 밝혀 패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호소핀 대박에 힘입어 2012년 딸과 함께 한식양식 등의 음식을 판매하는 '키친스토리'라는 법인을 설립해 딸을 대표이사에 앉혔다. 이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과 삼성동에 '빅마마의 밥친구'라는 프리미엄 반찬가게를 론칭해 사업을 확장했다.

승승장구하는 모습과 반대로 숨겨진 아픔도 있었다. 방송 활동 중 두 번의 뇌경색을 겪은 것이다.

이혜정은 "처음엔 8시간 연속 강의를 끝내고 난 뒤였다. 침을 흘리는 안면마비 증세가 왔다"며 "급하게 응급실에 갔더니 뇌경색으로 대동맥 혈관이 수축돼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긴급한 상태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는 밤샘 촬영을 했는데 눈이 떨렸다"며 "바로 병원으로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해 주시길 만에 회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이혜정

요리연구가



키친스토리

SBS 라디오 '김창렬의 올드스쿨', KBS2 '비타민',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 등을 비롯해 지난달 6일 채널A '절친 토크멘터리 4인용 식탁'에 출연해 3만 개의 그릇을 자랑하는 등 방송에서 꾸준히 활약 중인 이혜정의 집이 화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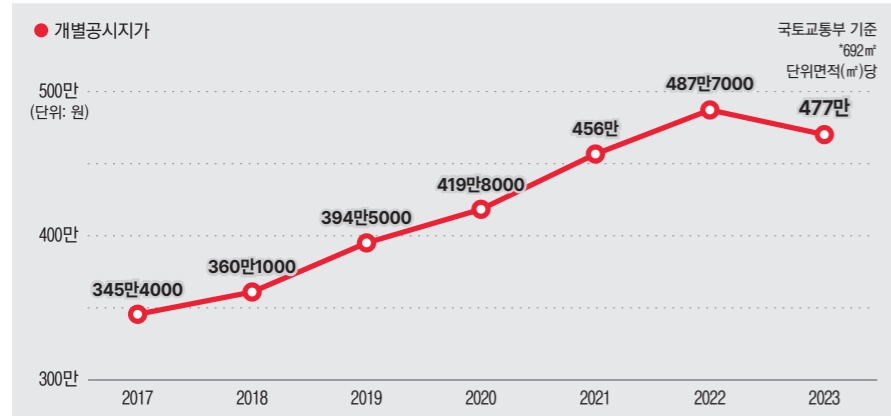
2006년 부천으로부터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일대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아 2년 뒤 고급 전원주택(사저)을 신축했다.

선바위역 인근 우면산 산자락과 맞닿아 있는 그의 주택은 고급주택단지도 유명한 과천동 뒷골에 있다. 벽면이 분홍색을 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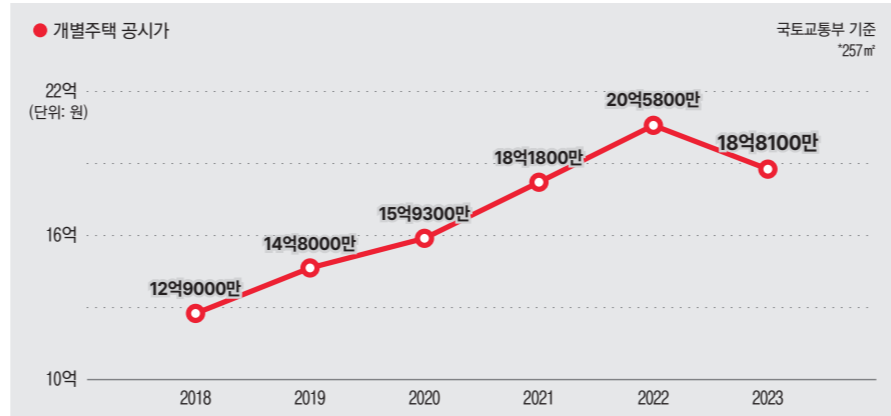
있어 주변 주택들 가운데 유독 눈에 띈다. 대지면적 582㎡(약 176.05평)·연면적 628.1㎡(약 190평),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1층엔 이혜정이 요리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개인 쿠킹 스튜디오가 있다. 23층은 가정집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택에는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돼 있다. 이혜정은 한 방송에서 "나이 들면 오르내리기 힘들다고 남편이 준 선물"이라며 출연자들에게 엘리베이터를 자랑스럽게 소개한 바 있다. 이동현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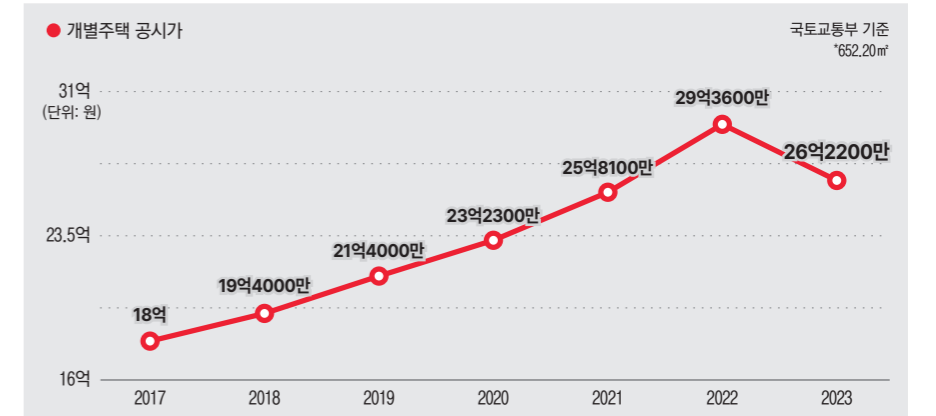
### 빌딩(경기 과천시 과천동)



### 단독주택(경기 과천시 과천동)



### 단독주택(경기 과천시 과천동)



### 아이유

헨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는 '좋은날' '너랑 나' '팔레트' 'Blueming' '바람지' 등 여러 히트곡을 가진 대한민국 대표 여성 싱어송라이터로 지난해 9월 국내 여성 가수 최초로 꿈의 무대라고 불리는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단독 콘서트 '더 끝내 아유 : 오렌지 태양 아래'를 열어 주목받았다. 2008년 데뷔한 그는 데뷔곡 '미야'가 주목받지 못해 출발은 힘들었다. 이후 밝은 이미지의 아이돌 콘셉트로 전환해 이듬해 'Boo' '마쉬멜로우'로 단숨에 가요계 블루칩으로 떠올랐으며 '좋은 날'과 '잔소리'로 '국민 여동생'으로 등극했다. 특히 '좋은 날'에선 3만 고음으로 뛰어난 가창력을 인정받고 스타덤

에 올랐다. 이후 발표하는 앨범마다 차트 상위권 차지는 물론 연말 시상식에선 각종 상을 휩쓸었다. 2011년부터 활동 영역을 연기로 넓혀 드라마 '드림하이' '프로듀사' '호텔 델루나' '나의 아저씨' 등과 영화 '브로커' '드림' 등에서 탄탄한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 이원우

전기자동차산업 대표이사 회장



이원우 전 가톨릭꽃동네대 총장은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동국대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교육부 사무관-대통령비서실 서기관-교육부장관 비서관-대통령교육자문회의 사무국장-교육부 교육정책기획관-서울시 부교육감-청와대 차관-환경대 총장-안양대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석좌교수-대진대 총장 등을 지냈다. 2009년 꽃동네대 총장에 취임한 그는 "사회복지 특성과 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 관련 시설을 완비하고 평생 책임지

도 교수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톨릭꽃동네대(구 꽃동네대)는 1999년 가톨릭 이념과 꽃동네의 인간존중 사상을 바탕으로 인 류복지 구현에 공헌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됐다. '국내 유일의 사회복지 특성화 대학교'라는 가치를 걸고 유능한 사회복지 및 간호 전문가를 배출했다.



### 정구용

현대인자컨트롤스 대표이사 회장



정구용 인자컨트롤스 대표이사 회장은 충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최고경영자과정 수료했다. 2004년에는 한국산업기술대에서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69년 현대차에 고졸 경리사원으로 취직해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아시아자동차-드래곤전기정밀공업 등을 거쳐 코메카 이사-경기 시흥상공회의소 부회장-한국산업단지공단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중소기업청 계열화 촉진협의회 위원-한국자동차공업협회 조합이사-인지에이엠 대표이사-알에프컨트롤스 이사-한국상장회사협의회 비상임부회장-한국무역협회 비상근부회장 등을 지냈

다. 정 회장은 1979년 인자컨트롤스 창업 후 대표이사에 취임해 자동차엔진 온도제어부품 분야에서 글로벌 우량 기업으로 회사를 성장시켰다. 실린더헤드커버 등 엔진 부품을 열과 충격에 강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교체해 차량 연비 개선에 크게 기여해 2014년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 맛있는 우리동네 부동산

### 지상 34층 '망상글로벌리조트' 2028년 준공... 관광발전 거점 기대

#### 강원 동해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EFEZ-경자청)은 '망상 제2지구 망상글로벌리조트 조성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11월30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망상 제2지구 망상글로벌리조트 조성 개발사업은 망상동 724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약 22만2734㎡(약 6만7000평)에 지하 5층~지상 34층 규모로 프리미엄호텔-테라스형 콘도-아트뮤지엄-북카페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개발사업시행자인 엠에스호텔앤리조트는 전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실시계획 승인 후 사업부지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2025년 11월까지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말 건축물 공사를 착공해 2028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망상 제2지구내 세계적인 하얏트 호텔그룹의 Grand Hyatt Hotel 및 Hyatt Alila Villa Hotel을 런칭하기 위해 경영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EFEZ)은 '망상 제2지구 망상글로벌리조트 조성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11월30일자로 고시했다.

탁계약을 2022년 12월 체결했고 8월2일 스테인 호 하얏트그룹 아시아퍼시픽 총괄사장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과 동해시를 방문해 운영계획과 설계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경자청은 10년 만에 망상 제3지구 실시계획이 승인되는 성과를 이뤘으며 현재 건축물에 대한 해외 컨셉 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등 순항 중에 있다. 그동안 망상 2지구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 동해시와의 실무협의회-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위거치며 원주지방환경청 방문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한 40

개 기관(부서) 의제 협의 및 개별법에 따른 환경교통-재해 등 필요한 행정절차 협의의 완료에 힘입어 행정력을 집중했다.

또한 실시계획 승인 전 경자청과 개발사업시행자 합동회의에서 향후 경자청 주관 추진상황 검증단 운영-정기적인 실무협의회 개최를 통해 기반시설 공사와 건축설계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점검할 계획이다.

심영섭 청장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은 곧 망상지구 성공적으로 개발되느냐에 달려 있어 사활이 걸린 문제다"며 "망상 제2지구 실시계획 승인은 망상지구 성공개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 성공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 동자청 전 직원이 합심하여 강원특별자치도와 동해시의 세계적인 관광지역 개발을 통해 명실상부한 동해안권 관광거점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 '지역 공유 사택' 청년 34명 모집

#### 울산광역시

울산시는 지역 청년들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의 '지역 청년 공유 사택'에 입주할 청년 34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공되는 사택은 △북구 송정동 소재 LH 1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26㎡ 4호실과 36㎡ 14호실 △북구 매곡동 소재 매곡휴먼시아 아파트 전용면적 46㎡ 16호실 등 총 34호실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중소·중견 기업 및 비영리법인(공공기관 제외)에 취업 또는 창업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19~39세·1인 가구 세대주)으로 신청 기간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다. 입주주요 선정되면 청년은 공유 사택의 관리비와 예치금(100만 원)을 부담하고 한국석유공사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최소 2년간 지원한다.

한편 '지역 청년 공유 사택 지원사업'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상생 협력



울산시청 전경.

사업의 일환으로 시와 한국석유공사-한국도지주택공사(LH)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석유공사의 신규 직원용 사택 일부를 지역 청년에게 공유하는 사업이다.

협약을 통해 시는 청년 공유 사택의 입주자 모집과 선별을 담당하고, 한국석유공사는 공유 사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원하며, 한국도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을 활용해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